

2020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석 [수학영역]

1. 총평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의 수학 영역의 문항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출제되었다. 2점, 3점 문항들은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들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게 출제되었으며, 4점 문항들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는 출제범위와 응시인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년도 3월 학력평가보다는 가, 나형 모두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년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3월 학력평가를 긴장하면서 치렀을 것이다. 단 한 번의 모의고사 성적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준비와 앞으로 치르게 될 모의고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학습 전략

상위권 학생들은 최고난도 3~4문항이 출제되는 경향을 잘 파악하여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준비로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최고난도 문항이 아닌 다른 문항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므로 빠르게 해결하고 최고난도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고난도 문항은 여유있게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올바른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각 단원의 기본 개념과 대표 유형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하위권 학생의 경우는 교과서 수준의 2점, 3점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다시 복습하고 교과서의 기본 문제와 유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

수학은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니다. 따라서 조급해 하지 말고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꾸준히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준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르지 않는 성적에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대입 지원 전략

올해 2020학년도에는 약 6만 명의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특히 작년 11월에 치러진 2학년 11월 모의학력평가의 전년도 응시인원을 비교하면 자연계 학생들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전체적인 인원의 감소와 더불어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원 감소가 수학 가형을 응시하는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전년도에 비해 등급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대입 지원 전략에서 보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수학 가형으로 지정하고 있는 전형에 도전하는 수험생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충족한다면 다른 해와 비교하여 의외의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3월 학력평가를 치른 재학생은 6월 모의 수능을 대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9월 모의 수능을 치르고 이틀 뒤에 수시 원서접수를 하게 된다. 예년보다 9월 모의 수능의 결과를 분석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6월 모의 수능의 결과가 수시 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4월 학력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졸업생과 함께 고사를 치르는 6월 모의 수능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